

중국산 판유리 반덤핑관세 부과

산자부, 3년간 15.22-36.01% 결정 ... China Glass는 제외키로

중국산 플로트 판유리가 국내에 덤핑 수출된 것으로 인정돼 최고 36%에 이르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게 됐다.

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월27일 전체 회의에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문제를 심의한 결과 중국기업들의 덤핑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정하고 덤핑수준에 따라 15.22-36.01%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월28일 발표했다.

그러나 한국에 해당제품을 수출해온 중국기업 가운데 덤핑사실을 인정하고 수출가격인상을 약속한 China Glass 그룹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면했다.

문제가 된 플로트 판유리는 유리물을 용융금속 위로 흘려보내 금속표면과 완전 평면상태를 이룬 상태에서 유리물을 냉각시켜 만들어진 판유리로, 덤핑방지관세가 매겨지는 상품은 두께가 4-13mm인 맑은 유리와 그린 유리제품이다.

판유리를 생산하는 KCC와 한국유리는 덤핑을 무기로 한 중국산의 급격한 시장침투로 어려움을 겪다 2007년 3월 조사를 신청했으며 무역위원회는 2007년 5월부터 국내기업과 수입기업, 수요자와 중국측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.

국내 플로트 판유리 시장규모는 3200억원(2006년 기준)선이며 국산이 81.3%, 중국산이 18.6%, 기타국 제품이 0.1%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2/28>